

가정의 달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새끼야 사방에서 와서... 붙어서 살아나가게 하라” 에스겔 37:9

새로운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새 성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May 16,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김훈테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이사야 51:12-16 무엇을 두려워 하십니까?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찬송 382장 -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통일찬송 432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홍정임 집사, 유덕하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보냄의 찬양 / 찬송 430장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3절) (통일찬송 456장) * 축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갈라디아서 5:2-15

진리와 핵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에덴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천국의 행복을 이웃과 세상과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 2021 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붙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2. 성도의 사명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3. **오순절 기간** 성령님으로 충만하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4. **주일예배** 예배를 CDC 와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zoom 과 CUMC 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와 지혜를 모읍시다.
5. **2세 신앙교육** E-Learning의 환경 속에 있는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 교육을 위해 기도합시다.
6. **성경 읽기** 교회 웹사이트에 매주 성경읽기/문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성경공부 / 박진성 집사, 웹사이트) 말씀 공부에 힘 더욱 씁시다.
7. **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오전 7 시)에 참여합시다.
8. **치유, 회복, 나눔**의 사역을 은혜롭게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5월의 사역 -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16-22), 선교 주간(23-29), 선교 주일(30)

♥ **생일 축하** ♥ 구민(8) 김진숙(17) 구민우(16) 최내권(20)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5/9	5/16	5/23	5/30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최선운집사	최내권집사
주일헌금위원	5/9	5/16	5/23	5/30
	유덕하집사/홍정임집사		홍현근집사/최선운집사	
주일안내위원	5월			
	구민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 / 이사야 50:4-9**

'종의 노래'라 일컫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과 수난, 그리고 부활과 영광을 담고 있다.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생각,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간다. 사람들은 낮은 자리, 고난의 자리를 무조건 피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한 핍박과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역설에 있다. '옳음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섬기고 그분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예수님은 종의 길을 가셨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 그럴 때 사람에게는 평범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일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야하는 승리와 영광의 길이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자.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 이사야 51:12-16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군사력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공급하신다.

세상과 악한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으로 승리하자.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 이사야 51:12-16

바벨론의 군사력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위로하고 보호 하시며 은혜를 내려 주신다. 비록 바벨론이 강대국이지만,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신다. 바벨론은 유다의 징계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던 몽둥이만을 보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을 두려워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도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두려움은 항상 반비례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아지면, 사람을 향한 두려움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사야는 사람 또는 악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분명히 선언한다. 유다 백성은 전쟁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그들의 포로기간은 정해져 있고, 포로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꾸준히 체험했다. 하나님은 자연과 인생의 주권자이다. 바벨론 포로생활 중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즉 광야에서 40년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함으로써 자신의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최고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었다. 무엇을 두려워 할 것인가.

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을 잊은 채,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깨우친다. 이 외침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권면한다. 우리 누구나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하는 자신의 '바벨론'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으로 모두 이길 수 있음을 잊었는가. 내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바벨론'의 잔재가 있다면, 모두 버리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평강과 감사로 살아가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 보며, 그 어떤 두려움이든 이기며 승리하자.

말씀 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삶과 신앙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헛된 일이 된다.”

한국문화는 나이에 민감하다.
그래서 제약을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사회적 안정과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낸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늘 외친다. “속히 주시옵소서.”

나 또한 이십 대 후반까지 시간에 쫓기며 바쁘게 살았다.
빨리빨리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걸
신뢰했지만, 그 타이밍에 있어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달랐다.

바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중독 증상이 사람들 사이에 퍼진 것 같다.
바빠 보이는 게 미덕이 되고 너무 바쁘다는 말을 자랑처럼 하기도 한다.
일과가 끝난 저녁에는 늘 약속을 잡아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과 관계의
끈을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낙오될 것 같은 불안이 엿보인다.

이런 노력의 배후에는 시간을 잘못 경영하면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는
불안이 작용하는 것 같다. 그러나 무조건 시간을 아끼려고 노력한다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분을 순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세월을 아끼라”(엡 5:16)라는 성경구절은 많은
경우에 더 열심히 물리적 시간을 절약하며 살라는 뜻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때를 말한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뜻이다.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아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를 잡는 데는 소홀할 수 있다.
무의미하게 믿음 없이 반복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가 애써 추구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의미한 반복일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오랫동안 열심히 작업한 것이 무의미하게
끝나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나도 수개월 이상 열심히 수집한 자료가
나중에 무의미해진 적이 여러번 있었다.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정작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루어진게 없었다.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병자들이 넘쳐났고 믿지 않는 사람과 죄인 투성이였다.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걸 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럼에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벽한 스케줄과 타이밍 가운데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걸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당신이 받아야 할 고통의 잔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다 이루어 졌다고 고백하실 수 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읽고, 그 기회를 잡으셨다.

기억하라.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이용규 『내려놓음』

오순절 / 성령강림절

- 오순절 날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행 2:1-13)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 부활절 이후 50일 째 되는 날에 기념합니다.
- 올해에는 5월 23일(주일)이 성령강림일 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 1:4)"고 하셨다.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 한데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오순절을 맞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 명의 성도들은 기도하던 중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행 2:1). 기독교에서 성령강림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꼽힌다. 특히 성령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로 기념되고 있다.

성령강림절은 유대교의 3대 절기인 '오순절(Pentecost)'과 같은 날이다 (레 23:9-11). 구약에서 오순절은 '5'를 뜻하는 헬라어(펜테)에서 파생된 말로 '50번째 날(축제일)'이란 뜻이다. 유월절, 수장절과 함께 구약 3대 절기인 '칠칠절(출 23:14-17)'에 대한 헬라식 표현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 50일째 되는 날에 행해지는 감사절을 이른다.

또한 성령강림절은 교회의 확장과 성장을 도모하는 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충만을 기도하게 된다. 우리는 그날밤, 삶과 피를 나누어주셨던 예수님과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을 기억하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된 우리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아야 한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후세에 6:3

“‘가리켜 오순절(五旬節)이라 함은 제자들이 영감을 받은 날이니라’ (행 2:1-4)”

‘오순절(五旬節)’은 ‘50번째 날(五旬)’을 뜻함이다

‘50번째 날(五旬)’은 유월절(逾越節)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다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